

□ 가상대학 시리즈1—출현의 당위성과 의미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하는 학습공간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환경

21세기 과학 문명의 꽃 정보통신이 새로운 교육매체로 그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가상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 공간에 있는 대학을 말한다. 우리학교 및 경북대를 포함한 9개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한국가상대학 연합이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실시한다. 사람들의 우려 반과 기대 반에서 출범하는 가상대학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상대학의 출현 당위성과 의미를 짚어본 후 다음주에는 가상대학 정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강 인 예

(사범대 교직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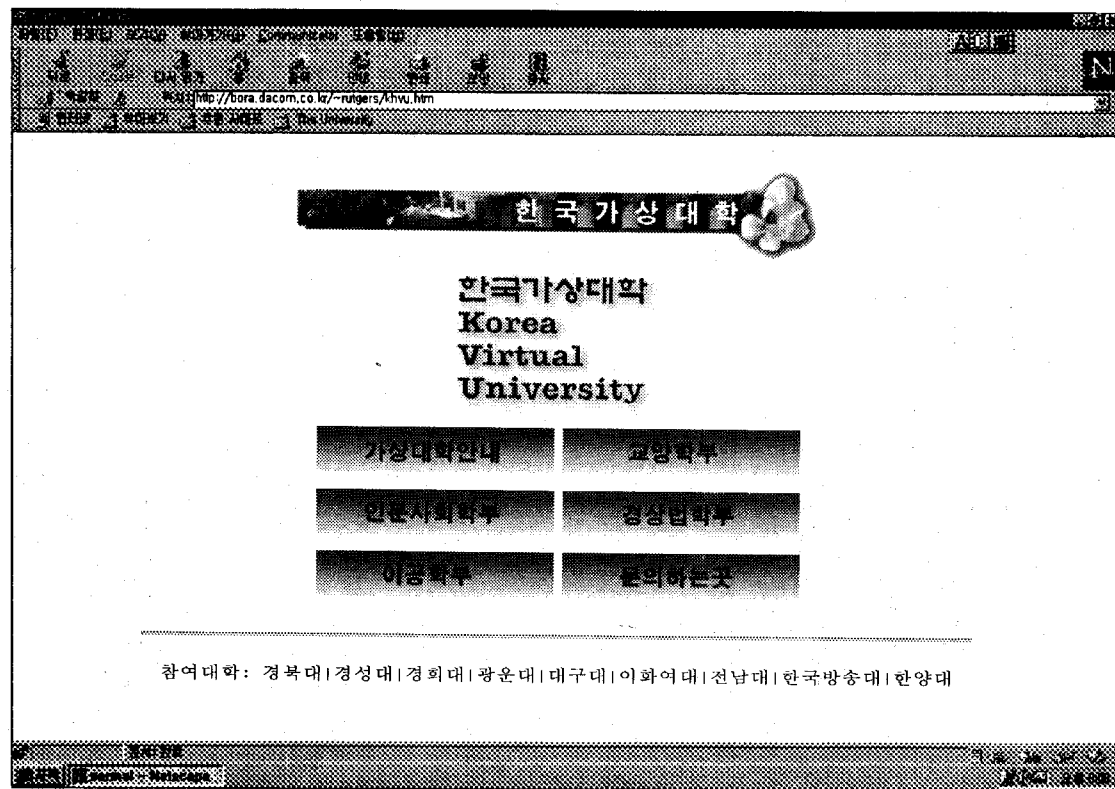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 대학, 가상대학은 과연 어떤 위치와 의미를 지닌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좁게는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는 흔히 열린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컴퓨터 시대, 혹은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비록 각 용어마다 그 배경과 강조점은 다를지 모르나 이들 모두가 기존의 인식론적, 실천적 패러다임을 전제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인식론적, 실천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시간적 경험, 의미, 경제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 시대는 동질성에서 다양성으로, 중심화에서 탈중심화로, 확장성에서 불확정성으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권위와 집중에서 자율과 분산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삶의 질과 기회에 미치고 있는 총체적 변화의 모습이 가장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환경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환경의 급진적 변화를 선도하는 결정적 영향력은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육이론적 요소이다. 지금껏 교육현장의 주체가 되어오던 '교사' 그리고 객체로서의 '학생'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참된 의미에서의 '학습자 중심적 교육환경'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기존에 교사에게 집중되어 있던 학습통제권이 대폭 학생에게 이양되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더불어 교사에게 의한 '지식 전달'의 방식을 지양하고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나아가 다른 학습자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사이버대학의 필요성과 역할이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지식 공유'의 측면이다.

교육환경의 급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또 다른 요소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이다. 이것은 본래 교육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발달하여 왔다. 그러나 IT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 역시 앞서 언급한 교육의 이론적 측면과 상당히 동일한 방향과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T의 발전 방향과 성격은 대략 세 가지 단계-반작용적, 상호작용적, 순작용적-로 구분된다. 먼저 반작용적(reactive) 패러다임에서는 학생(사용자)의 역할이 단지 주어진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반응에 국한된다. CAI, CBT, Stand-alone 컴퓨터 등이 이 패러다임의 대표적 예이다.



▲한국가상대학연합 홈페이지 초기화면

다음으로 상호작용적(interactive) 패러다임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예로서는 interactive video, 비디오화상시스템, simulation, e-mail, 실시간 컴퓨터 컨퍼런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순작용적(proactive) 패러다임은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전적인 통제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은 오로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규정된다. 하이퍼미디어, 비동시적 컴퓨터 컨퍼런싱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된다. 바로 이러한 순작용적 패러다

임에 이르면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이버대학의 개념이 등장한다. 결국 사이버대학의 당위성과 의미는 교육환경의 급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위의 두 가지 요소-교육이론과 정보통신기술-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우선 그것은 교육자들의 지속적 관심이 되어왔던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이 진지하게 고려되는 환경, 나아가 '질'(quality), 평등(equality), 자유(liberty), 효율성(eficiency)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필요로 하였다. 일단 그런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자 그 위에 사용자 중심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덧붙여지면서 비로소 '사이버 대학'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다시 말해 이전에 Naisbitt가 말한 'High Tech, High Touch'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 접촉과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한다는 의미)의 실천적 가능성을 사이버대학에서 찾는 것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학습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존재하고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 구성된 지식들을 다른 학습자들과 활발히 공유할 수 있는 학습공간 바로 이 학습공간을 사이버대학이라 하는 대체적 교육체제에서 기대해 본다.

□ 인터뷰—가상대학 기획위원 이인희(언론정보학부) 교수

가상대학 실시 배경은

원격수업을 통해 동일한 과목의 강의를 타대학 교수로부터 들을 수 있다. 이를 공동강의라 하며 이는 강의의 질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학교는 전담대동 5개 대학과 함께 황순연(사회학)교수의 사회학 개론의 공동강의를 95년 2월 시작했다. 이는 우리학교가 '가상대학'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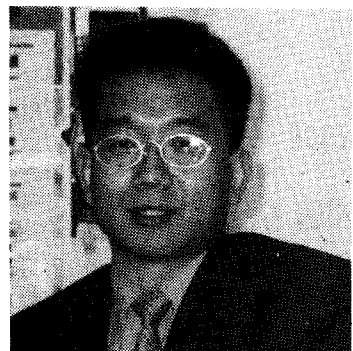
9개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가상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학간의 공동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상대학의 운영에 대한 대학들의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가상대학에 뜻이 있는 대학들이 참여해야 한다. 대학들의 강한 의지와 진지한 자세가 없다면 가상대학은 단지 거품에 머물 것이 다.

가상대학을 실시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가

기본적으로 정보기기 및 통신장비(인터넷)를 각 가정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냐하는 문제가 떠오른다. 또한 인터넷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점등 아직 기술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문제가 가상대학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말 자체의 가치가 크다. 가상대학은 사회화의 과정 및 소위 대학생살이라고 일컫는 것들

학생들의

주제적인 자기관리와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필요하다

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로지 지식 전달의 장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가상대학이 우리사회에서 설 자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방안은

가상대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제이다. 그러므로 가상대학에 있어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들 스스로 수업 및 출석 관리를 주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태도 및 자기관리를 통해 가상대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리실정에 비추어 가상대학이 실용화될 가능성은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및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에서 하나의 교육체제로 뿌리내리는데 있어 가상대학은 시기상조다. 그러므로 가상대학은 교육의 효율을 높이는 교육매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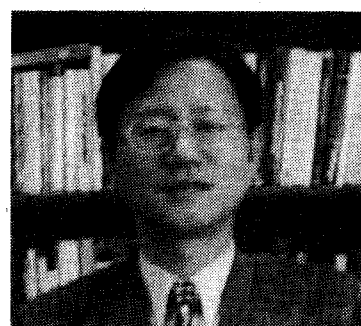
(학술부)

□ 인터뷰—남북해의 학자 학술회의

참가자 권만학(국제관계학)교수

화해, 타협의 정신으로 관계 개선 모색 필요

지난달 20일부터 양일간 북경 쉰빈스키 호텔에서 '남북해의학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통일포럼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만학 교수는 "이 학술회의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제시하며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회의성과를 정리했다.



남북한 모두 97년 후반기에 최고 권력층의 이양과정을 겪었고,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도 신정부의 출범식 이전에 열려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권만학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세로 상대체제의 확고한 인정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꼽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권만학 교수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국가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는 남북의 주권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이념 및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체제를 인정하는 법률 및 규약을 만들고 남북대화 화의 즉각적인 재개 및 남북기본 합의서를 복원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화해와 협력을 주장한 남한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북한 학자들은 동의의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신중할 태도를 보였다. 남한측의 화해와 협력의 발원에 대해서 북한측은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 및 현실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에 회의 기간 내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한편 학술회의 기간동안 남한과 북한은 '자주'라는 개념에서 일정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측의 자주 개념은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반 외세적인 자주는 남한내 주한미군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권교수는 "이러한 '자주' 개념의 차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권만학 교수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국가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는 남북의 주권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이념 및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체제를 인정하는 법률 및 규약을 만들고 남북대화 화의 즉각적인 재개 및 남북기본 합의서를 복원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번 학술회의 성과에 대해 한반도 내의 회의장소를 검토기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 내에서 해결하자는 남북 양측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모임에서 "남북양측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에 근접한 의견일치를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권 교수의 "다만 방법론에 있어 이견이 존재하지만 방법론은 앞으로 양측의 절충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가 지난 반세기의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가 주목된다.(지은정기자)

신간안내

바다를 보고 싶은 사람들
10년 동안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장애인'만 찍어온 사진가 이정철씨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담아 책으로 펴냈다. 장애인과 그 주변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이 사진들을 찍은 저자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정철 지음. 달과 꿈 펴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세기말의 불안과 함께 개인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자신의 인생과 자기자신을 돌아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어두운 기억의 터널을 더듬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집이 발간되었다.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국일미디어 펴냄

180일간의 영국 역기
영국가정의 이모저모를 살살히 보임으로써 영국인의 삶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었고, 1장은 영국생활의 경험담, 2장은 우리나라 학생들이고쳐야 할 언어습관, 3장은 학교 생활을 잘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다. 조미숙 지음. 열린문화 펴냄

세계로

준비된 학생, 경희는 든든합니다

미래로

1. 장학금의 자격

우리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자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사정이 어려우며 타에 모범인 학생.

2. 장학금 지급 제한

- 학적 · 학생증칙에 위배되는 불미한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 일반휴학자 및 군입대자
- 성적 경고자

3. 장학금 지급 기한

장학금의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학기단위로 하며 장학내규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도 있다.

4. 장학금 신청 및 선발

교내장학금은 정해진 기간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학생을 확정한다. 교외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의 추천요구에 의해 선발하게 되며, 그 인원 및 금액은 장학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장학금 신청공고 및 각 대학(학과, 학부)별 선발기준 발표

6월, 12월 대학주보 및 각 단과대학의 게시판에서 알 수 있으며 장학금의 종류, 제출서류, 신청일자, 신청장소를 잘 파악하여 신청해야 한다.

6.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가정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 · 누락된 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증서로 본인에게 교부하며 신청은행(서울은행 회계동지점)에서 환불받는다.

7. 교외장학금 신청용 추천서 발급

별도의 장학금 신청용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서 발급의뢰서에 단과대학의 학장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장학복지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8.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가. 교외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제대명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한국장학회	무이자 대여 농어촌 용자	●학업성적이 20%이내 ●학업성적이 50%이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무양무자의 자녀 ●무양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00만원 범위
한국지도자 육성장학회		●전학년 성적이 3.5이상인 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통행이 방장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록금 전액
정수장학회		●직전학기 성적이 3.5이상 또는 학업성적 5%이내인 자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국가와 사회에 유익하게 기여하는 자	등록금 전액
서남재단		●재신세 납부액이 3만원 미만인 편부, 편모 슬하의 자녀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	1,100,000원
문수장학		●문신의 출신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통행이 단정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전년도 성적이 3.0이상인 자 성적증서화가 10%이내인 자	등록금 전액
대한장학회		●사상적 건전하고 통행이 방정한 자 ●타의 국가에 크게 기여하리란 의입되는 자	1,000,000원
아산재단		●정수장학회: 전년도 성적이 3.5이상인 자 ●상설수업장학: 전국의 사학부처시설(아산회) 출신자 ●특별장로장학: 각종 산업분야에 1년이상 근무한 있는 성공유망자	등록금 전액
신라문화재단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타의 모범이 되면서 봉사활동에 관여이 있는 자	등록금 전액
정산장학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정결하며 통행이 단정한 자	700,000원
영동문화재단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	750,000원
한국유리공업의		학업성적이 전학년 3.0이상인 자	900,000원
연경 재단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3.0이상인 자	1,500,000원
교강 장학회		●강원도 출신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전년도 성적이 3.0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교강 장학회		●학업성적이 3.0이상인 자 ●통행이 방정 타의 모범,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등록금 전액
대한문화재단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의과대학 학생들 대 내외국으로 출장한 자	등록금전액, 일부
제주 장학회		제주도 출신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800,000원
세종 장학회		서울 경기지역이 3학년 3.4학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700,000원
고은 장학회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 ●통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인정되는 자	등록금 전액
복진 장학회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가정형편이 방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 전액
충진 장학회		서울도 과제성도 연경 거주지 직전학기성적 등록금전액 상당	500,000원
동양의 장학		보통학교, 경주김씨종친회, 황씨종친회, 풍류어공친회 등	등록금전액, 일부
통행의 장학		충청남도, 해외유학생, 간호한국동맹회, 경영학회동맹회, 경제학회동맹회, 약대동맹회, 적제동맹회, 생활과학동맹회 등	등록금 일부
기타		한진, 건우, 군포, 대한과학회제대단, 문물학회, 한국방송중공사, 대한한글, 이아나학회, 유한, 한진, 건우, 신영은행, 대한은행, 제정은행, 조흥은행, 대한은행	

나.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범례=입 : 입학금, 수 : 수업료, 기 : 기성회비

장학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총 장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자로서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입 시	입시장학 특선에 의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우 수	①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3.0이상이고 통행이 단정한 자로서 소속 학과장이 추천한 자 ②소속 학과장이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모 범	통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인 자로서 소속대학 학과장 또는 학장이 추천한 자 및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설 기 A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설 기 B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보 훈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문 화 상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밝 은 사회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경 회 가 족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교 사 A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교 사 B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우 정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근 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과장 추천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외국인학생A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자국에 관계 규정에 의거,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 선정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외국인학생B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출신국 장학금, 본국의 명예를 자국에 선양한 공이 현저한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외국인학생C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본국발원과 관련된 봉사 및 특별교육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자	수 기 전액 또는 일부

서울캠퍼스 학생처

※ 지면관계상 대학별 선발기준은 다음주에 계속됩니다.